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

조영현 연구위원, 이해은 연구원

요약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함.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기대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파생상품 거래한도 완화는 이자율스왑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관리 활성화 및 새로운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산운용규제 완화는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전략 다양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규제당국은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운용역량 발전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험회사도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해외투자 및 파생상품에 대한 운용역량을 배양해야 함.

■ 지난 4월 25일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¹⁾ 중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²⁾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기대수익률 제고와 위험분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외화자산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다양한 해외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대수익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반계정 외화유가증권 비중: 생명보험 4.7%(2013. 12) → 8.3%(2015. 12), 손해보험 6.5%(2013. 12) → 9.6%(2015. 12)

■ 파생상품 거래한도 완화³⁾는 이자율스왑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관리 활성화 및 새로운 파생결합증권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의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완화, 외화자산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 폐지 등임.
 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책정한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증권 이외에도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사가 투자적격 등급 이상을 지정한 외화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됨.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중앙청산기구)를 거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산출하고, 투자한도 예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열거식 방식이 아닌 명확한 정의로 규정함.

- 현재 중앙청산기구를 거친 장외파생상품은 원화이자율스왑이며, 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출 시 위탁 증거금을 이용할 경우 더욱 많은 거래가 가능
 - 보험회사의 이자율스왑 이용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거래한도 완화로 원화이자율스왑을 이용한 능동적인 금리리스크 관리 가능⁴⁾
 - 파생거래 투자한도 예외가 인정되는 파생결합상품이 열거식에서 명확한 정의로 바뀔에 따라 향후 새로운 파생결합상품 출현 시 신속한 투자 가능
-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 폐지⁵⁾는 RBC제도 강화에 대비한 선제적 규제 합리화로 보임.
- 현재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과 유동성비율이 자회사 소유 요건을 훨씬 상회하므로,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의사결정에 동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되지는 않음.
 - 그러나 향후 RBC제도 강화로 많은 회사가 동 규제에 의한 제약으로 투자형 자회사 소유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한 것으로 판단됨.
- 자산운용규제 완화는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전략 다양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규제당국은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운용역량 발전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총자산의 30%(일반계정)로 제한되어 있는 해외투자한도도 철폐 혹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해외투자 확대는 국내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운용전략이며, 이미 일부 보험회사는 외화유가증권 비중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20%를 초과한 상태임.
 - 대만 생명보험회사들도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자국 내 저금리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함(푸본생명의 해외운용자산 비중: 56.4%(2015. 9)).
 - 아울러 보험회사도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해외투자와 파생상품에 대한 운용역량을 배양시켜야 함.
 - 특히, 대형사는 이자율파생상품을 이용한 금리리스크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kiri

4) 위험회피수단 요건을 충족하는 이자율파생금융거래의 경우 거래한도 적용을 받지 않으나 요건 충족이 까다로움.
 5) 벤처캐피탈,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소유 요건(출자액이 전액 부실화됐을 때도 RBC비율 150% 이상과 유동성비율 100% 이상을 충족)을 폐지해 자산운용 관련 중복규제 부담을 완화함.